

[종합·해설]



세균 NO! 클린핸즈

국내에서 돼지 인플루엔자(SI·Swine Influenza)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29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 씻는 법을 교육하는 '세균, NO! 클린핸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국가경쟁력위원회 교통운영체계 개편

경찰청이 29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은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주는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차로 이하도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 도입
직진 신호 우선 원칙 세우고
도심 제한 속도 시속 50km로

◇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원칙적 허용'=지금까지 소규모 도로에 서만 가능했던 비보호 좌회전이 앞으로는 3차로 이하 교차로에선 원칙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들은 좌회전 신호가 없거나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에도 요령껏 방향을 틀 수 있게 된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려는 것은 기존의 신호주기가 교통흐름을 개선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선진국은 신호등을 남북직진→동서직진 2현시(顯示)로 운영해 신호주기가 60~120초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더해져 남북직진→동서좌회전→동서직진→남북좌회전의 4현시로 운영해 주기가 140~150초로 늘어난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허용에 따른 대책으로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의 직진 차량이 충돌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출 계획이다.

또 좌회전 전용 대기 차로를 설치하거나 좌회전 대기 차량이 빠져나가도록 2~5초간 모든 방향에 적색신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원칙적 허용' 우회전은 제한=현행 신호체계로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 보행자가 건너는 건널목과 바로 만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많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호등은 우회전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차량에는 적색신호를 줄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차로 개량사업을 추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직진 우선 신호원칙 세운다=경찰은 또 좌회전 또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를 직진신호보다 먼저 주는 기준 신호등 운영 방식을 변경해 직진신호를 다른 신호에 우선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차로의 신호등은 '직·좌 동시' 40.4%, '좌회전 후 직진' 29.1%인 데 비해 '직진 후 좌회전'은 9.7%에 불과하다.

좌회전 또는 직·좌 동시 신호를 직진 신호보다 먼저 주는 교차로가 많아 교통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진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점진적으로 '직진 후 좌회전' 신호 비율을 늘려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교차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 점멸 신호등 늘린다=우리나라 신호등 중 점멸신호로 운용되는 현황을 보면 심야 16.2%, 전일제 12.3%, 휴일 1.1%의 비율로 운영체계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필요하게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량을 고려해 심야나 휴일에는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하고 신호 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없애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화순 외곽 순환이나 중심부 경유나

광주~화순 광역철도 용역 보고회 2개 노선 제시

市, 수익성만 따지는 정부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광주~화순을 잇는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노선이 화순 외곽순환·중심부 경유 등 2개 안으로 압축됐다.

이 노선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지원의지가 관건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29일 광주시가 개최한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선안이 제시됐다.

광주지하철 1호선 종점인 광주 소태동~화순 전남대병원을 잇는 12km 내외인 광역철도 노선 1안은 소태동~화순 외곽~화순 전남대병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2안은 소태동~화순 중심부 ~화순 전남대병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1안은 화순 지역의 장기 도시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 편의성, 시공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점으로는 이 노선이 지상고가 경량 철로 건설돼 노선 구축 대상인 도로폭이 현재 9~14m 안팎으로 협소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즉, 화순 지역 현재 도로의 폭을 20m까지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안의 장점으로는 화순 시내를 관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문제점으로는 군내 중심지에 노선을 구축해

야기 때문에 건축물 균열, 소음에 따른 주민부담이 부각됐다. 이밖에 모두 6천2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은 일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75%, 지방비 25%로 비교적 저자체 부담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9월 광주~화순 광역생활철도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간 시는 오는 2010년 2월께 최종 용역안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의 최종 용역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서 수립, 실시계획 등을 거쳐 광역철도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건의하는 상태다. 국토부가 수익성 판단을 골자로 한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예 타당성 용역을 면제해줄

거나, 그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 사업이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돼 있음에도 적극 지원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는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적극 검토로 한 바 있다.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는 2010~2019년 1조7천억원을 투입, 광주~나주 22km, 광주~화순 12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생활철도가 건설되면 광주 인근 나주와 장성, 담양, 화순 등이 가깝게 연결돼 광역교통망이 형성되고 도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건설의 수익성 만을 따지다 보면 광역철도 건설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가장 비싼 집 35억5천만원 금남로 단독주택 주택 공시가격 고시

아파트 광주 0.8% 내리고 전남은 3.2% 올라

광주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0.8% 하락한 데 비해 전남은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주택은 광주·전남이 각각 1.3%, 1.28% 하락했다.

국토해양부, 광주시와 전남도는 29일 "올해 관내 개별 주택 8만8천여 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구 미륵동 상무자이(210.8㎡)로 4억3천200만원이었으며, 전남은 여수시 학동더 모스트 라이프(211.9㎡)가 3억7천만원이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3% 하락해 전국 평균(1.84%) 하락률보다 하락폭이 다소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동구 -

0.58%, 서구 -0.97%, 남구 -1.26%, 북구 -1.65%, 광산구 -1.76%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3채로 파악됐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 5가 금호문화재단 소유 단독주택으로 35억5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북구 태평동 단독주택으로 35억7천원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단일주택)인 9억원 이상 주택은 모두 3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은 신규 공시분과 건물·부속토지 변동분을 제외한 순수 공시주택 가격 증감률은 지난 해와 비교해 평균 1.28%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장흥군과 신안군으로 각각 -2.44%, -

2.38%였으며 하락률이 가장 적은 곳은 담양군과 여수시로 각각 -0.47%와 -0.33%였다. 도내에서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게 공시된 곳은 목포시 유달동 개인 단독주택으로 7억7천만원이며 여수시 서교동 한 주택도 6억9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이 이의가 있을 때 오는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자치단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해 개별 통지한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최권일 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 아시아·태평양관광전 APTE

돌리십니까?
5월 예수와 바닷소리가...

2009 예수교稣徒大會場
2009 예수교稣徒전축제

세계 전통인류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세계 유일의 주제전시회 2009 예수교稣徒전축제